



영암군청 전 직원 코로나 검사 영암 금정면장과 여직원 등이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가운데 9일 오전 영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군청 직원들을 비롯한 군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광주 코로나19 급속 확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로

8일 15명...산발적 확진자 발생  
시 "1~2일간 추이 본 뒤 결론"  
전남 관공서 7곳 부분·완전폐쇄

광주시가 코로나19 3단계 격상의 기로에 섰다. 장소나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전남 등 인근 지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어서다. 광주시는 이번 주말을 최대 고비로 보고, 시민들에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전남에서는 8일 전남도청 일부 사무실에 이어 9일 영암군청 전체, 보성군청 일부 사무실 등이 연쇄적으로 폐쇄되는 등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2·3·6면>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장은 9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민관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단계 격상을 논의했으나, 좀 더 지켜보기를 의견을 모았다"면서 "앞으로 1~2일간 추이를 지켜본 뒤 상황이 위중하다는 결론이 나면 (3단계로)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일 생활속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광주시는 지난 5일 민관회의를 통해 3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거나, 감염사태가 엄중하다고 판단될 때 일상생활이 사실상을 스톱되는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에선 지난 8일 총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언제든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날 3단계 격상에 앞서 중위험시설 중 밀집도가 높고 지하에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고위험시설로 확대 지정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광주시가 3단계 격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타 지역에서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나홀로 3단계' 격상은 효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광주를 덮친 2차 감염 사태도 수도권을 거쳐 대전으로 전파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전지역 방문판매자를 통해 광주 시민에게 전염된 사례다. 특히 3단계 격상으로 지역사회 경제가 사실상을 스톱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가장 최근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일상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도 운

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10명 이상이 만나는 모든 집합 행사·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스포츠 행사도 모두 중단된다. 학교·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모든 공공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위험도가 큰 고위험·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와 인원 제한,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 등을 전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대신민 호소문을 통해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최고의 방역백신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지침 준수와 협조"라며 호소했다.  
이날 전남에서는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30명 확진자(영암 금정면장) 여파로 전남도청 일부 사무실, 영암군청 및 3개 면사무소, 보성군청 일부 사무실, 면사무소 1곳 등 행정기관 7곳이 폐쇄됐다. 전남에선 또 이날 금정면사무소 30대 여직원(전남 31번·회선 거주),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전남 32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9일 밤 8시 현재 경찰 수색 중...극단적 선택 추정

"유언 같은 말 남기고..." 딸 신고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됐다는 신고가 9일 경찰에 들어와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 딸은 이날 오후 5시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경력 2개 중대와 형사, 드론, 경찰견 등을 투입해 박 시장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는 성북구 길상사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일대를 집중 수색하고 있으나 오후 7시 현재까지 박 시장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설도 돌았으나 경찰은 오후 8시 현재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이날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않았으며 시가 현재 상황을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박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날 일정을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룡공원 인근에서 경찰특공대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모두 취소했다고 오전 10시 40분께 공지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원래 이날 오후 4시 40분에 시장실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서울-지역 간 상생을 화두로 지역균형발전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박 시장 휴대전화의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다.

경찰과 서울시는 최근 박 시장이 부동산 대책 등에 따른 격무와 스트레스를 겪어 왔다는 점에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머리를 식히고 있을 개연성과 함께 박 시장이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외출했다는 점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 김부겸 "책임지는 당대표 되겠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8·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9일 공식 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지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말로 쓰고, 피로 일군 우리 민주당의 역사를 당원 동지들과 함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30년 전 저는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민주당의 꼬마 당직자였다"

며 "전국에서 골고루 사랑받는 좋은 정당의 대표, 김대중 총재를 본받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매진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열었던 남북평화의 길, 노무현 대통령이 온 몸을 던진 지역주의 타파의 길, 문재인 대통령이 걷는 촛불혁명의 길을 따랐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176석 민주당이 경계해야 할 것은 자만이다. '부자 몸조심' '하머 대세론에 안주하는 것이 자만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영남 300만표를 책임지겠다"며 "지난 총선 750만명이 영남에서 투표했는데, 그 중 40%를 얻어 오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이 민주당에 허락한 176석이 안주하지 않고, 당정청 삼두마차 속도를 더하면서 안정을 이루도록 당부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윤석열, 장관 지휘 사실상 수용  
법무부·대검 갈등 일단 봉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하면서 법무부-대검 갈등이 봉합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대검찰청은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정승철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발효 중'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PlayByYourRules

The New A-Class Sedan & The New CLA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PlayByYourRules

The New A-Class Sedan & The New CLA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A 220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4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심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5.2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35g/km) · A 250 4MATIC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15kg, 자동7단, 복합연비 11.6km/ℓ  
(도심연비 10.4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48g/km) · CLA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50kg, 자동7단, 복합연비 11.5km/ℓ(도심연비 10.3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 15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